



#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7. 29(수)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b>경북도 청년일자리... 청년 눈높이로 안내하고, 재설계한다!</b> 7.29일, 경상북도 청년공감 일자리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지역 일자리 정보 또래 취업 준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안내	일자리경제 노동과	
② <b>미래 신산업 이끌어갈 '경북PRIDE기업' 모집!</b> 7.30~8.28 신규 참여업체 신청·접수, 도내 우수기업 발굴지원 R&D 기획 역량강화,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운전자금 융자한도 확대 등	중소벤처 기업과	
③ <b>최상의 여름휴가, 경북 농촌에서 가족들과 함께해요!</b>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비대면 농촌관광으로 치유 경북도 의료진·전국민 농촌관광시설 숙박·체험 할인지원 인기	농업정책과	
④ <b>동해안권 발전계획 수립 위해 경북울산강원이 뭉쳤다</b> 7.29일,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차 변경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연대와 협력의 환동해권 형성' 과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 구현' 목표	동해안정책과	
⑤ <b>경북도, 지방소멸위기 극복위해 전남도과 공동전선 구축</b> 7.29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지역발전 정책의 제도적 틀 마련 필요	인구정책과	
⑥ <b>복숭아명품화단지 조성으로 경북 복숭아 인기 쑥쑥</b> 경북농업기술원, '청도 복숭아 명품화단지 조성' 지역특화사업 추진 신품종 보급, 공동선별시스템 운영 등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42% 증대 성과	농업기술원	
⑦ <b>8월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간편하게 이전등기 하세요</b> 2020.8.5.~2022.8.4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토지정보과	
<b>추가 대구경북 미래가 걸린 통합신공항 함께 해 주십시오!</b> 7.29일 경북도지사 기자 간담회 개최, 통합신공항 유치 호소문 발표	통합신공항 추진단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7. 29(수)】</b>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노동과				
		작성 자	과 장	박성근			
			사무관	김보영	주무관	장수희	
		연락처	054-880-2648				

## 경북도 청년일자리... 청년 눈높이로 안내하고, 재설계한다!

- 7.29일, 경상북도 청년공감 일자리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 지역 일자리 정보 또래 취업 준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안내 -

경상북도 29일 도청 화백당에서 ‘경상북도 청년공감 일자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서포터즈 3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서포터즈는 지역 일자리 정보를 취업 준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청년세대의 요구를 일자리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경북 지역 일자리에 관심 있는 청년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3개월 간 팀미션과 개인미션을 수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북지역 일자리를 주제로 기획한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경북 일자리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또래 취업준비생들에게 지역 일자리를 친근감 있게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북지역 일자리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해 실무담당자 및 사업 수혜자 등과 인터뷰를 통해 기존 일자리 사업과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자리 캐스터 활동하게 된다.

활동 후에는 결과보고서 발표 및 주제별 토론, 전문가 피드백 등으로 경북 지역 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며, 도출된 아이디어

어는 고용전문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에 반영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들의 시각에서 지역 고용 정책을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보다 쉽게 도의 고용정책에 다가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위촉식 행사에 참석한 전우현 경제부지사는 “코로나19로 청년 취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며,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이 경상북도에서 일자리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2020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1조284 억원을 투입해 118개 사업 11만3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행사후 송부>

## 참고

# 경상북도 청년공감 일자리 서포터즈 발대식

- ❖ 지역 일자리 정보를 또래 취업 준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
- ❖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 행사개요

- 일 시 : 2020. 7. 29.(수) 11:00
- 장 소 : 경북도청 화백당(4층 401호)
- 참석인원 : 50명 정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서포터즈)
- 주요내용
  - 청년공감 일자리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 일자리 정책 안내, 서포터즈 활동계획 발표

## □ 시간계획

시간 계획		내 용		비 고
위촉식	11:00~11: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05~11:15	10'	◆ 서포터즈 운영 목표 안내	일자리경제노동과
	11:15~11:35	20'	◆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경제부지사
	11:35~11:50	15'	◆ 발대식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경제부지사
	12:00~13:00	60'	◆ 중식	
오리엔 테이션	13:00~13:20	20'	◆ 경북 청년 일자리 정책 안내	
	13:20~14:20	60'	◆ 조직활성화 강의	(주)에이비티 이나경대표
	14:20~17:00	160'	◆ 활동계획서 작성 및 발표	서포터즈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7. 29(수)】</b>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중소기업과				
		작성자	과장	이강학			
			담당	조장춘	주무관	박세라	
		연락처	054-880-2673				

## 미래 신산업 이끌어갈 ‘경북PRIDE기업’ 모집!

- 7.30~8.28 신규 참여업체 신청·접수, 도내 우수기업 발굴·지원 -
- R&D 기획 역량강화,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운전자금 융자한도 확대 등 -

경상북도는 발전 가능성을 갖춘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북PRIDE(프라이드)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28까지이며, 9~10월 현장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11월중 선정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6개사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신청자격을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나누어 보다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했다. 신청대상은 경북도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직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부채비율 500% 미만인 기업이며, 선택조건 1개 이상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택조건은 최근 3년간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 R&D 투자비율 1% 이상,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인 기업이다.

전년도까지 직·간접 수출비중만 신청조건에 포함시켰으나, 매출액 증가율과 R&D 투자비율에 대한 기준도 신설해 성장가능성이 크고 기술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형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의 자동차, 철강 등 지역의 주력산업에 더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등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경북PRIDE(프라이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정서 수여와 R&D 역량강화 지원,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시제품 제작, 기업간 협업 지원 등 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경상북도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을 신청할 경우, 우대업체로 지정돼 최대 5억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의 이자를 1년간 지원받고 각종 기업지원시책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http://www.gb.go.kr)) 고시/공고란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도는 2007년부터 경북프라이드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경북형 강소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글로벌 강소기업’ 27개사, ‘월드클래스 300’ 4개사를 배출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라고 말하며, “경북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나갈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기업들이 지역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별첨>

## 「2020년 경북PRIDE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내 우수기업 발굴 및 집중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0년 경북PRIDE기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30.

경 상 북 도 지 사

### 1 사업 개요

**목 적**

- 발전 가능성을 갖춘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 및 집중 지원하여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신청대상** : 경상북도 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지원 혜택**

- (역량강화) R&D 기획 역량강화, 해외비즈니스 출장, 해외박람회 참가(개별), IP 획득지원, 맞춤형 패키지 지원, 신바람 일터 지원 등
- (금융우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우대지원(5억원 이내)
- (기 타) 지정서 및 현판 수여, 道 기업지원시책 우선 지원 등
-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PRIDE기업』 통합시스템(<http://www.prideitems.co.kr>) 참조

## 2

### 신청

□ **신청기간** : 2020. 7. 30.(목) ~ 8. 28.(금)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반드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전자파일(pdf) 이메일(eugene@gepa.kr) 제출

○ 접수처 : (39393)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층  
강소기업육성팀 경상북도 경북PRIDE기업 담당자

\* (문의) : TEL. 054-470-8565 / Email : eugene@gepa.kr

□ **신청자격** : 필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선택 조건 1개 이상 충족

구분	선정기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li><li>• 직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단, 혁신형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은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기업</li><li>• 직전년도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기업</li></ul>
선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5% 이상</li><li>②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amp;D 투자비율 1% 이상</li><li>③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li></ul>

\* 신청제외 대상 :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도정소식 / 경북소개 / 고시공고 중 "2020 경북PRIDE기업 신규 선정계획 공고"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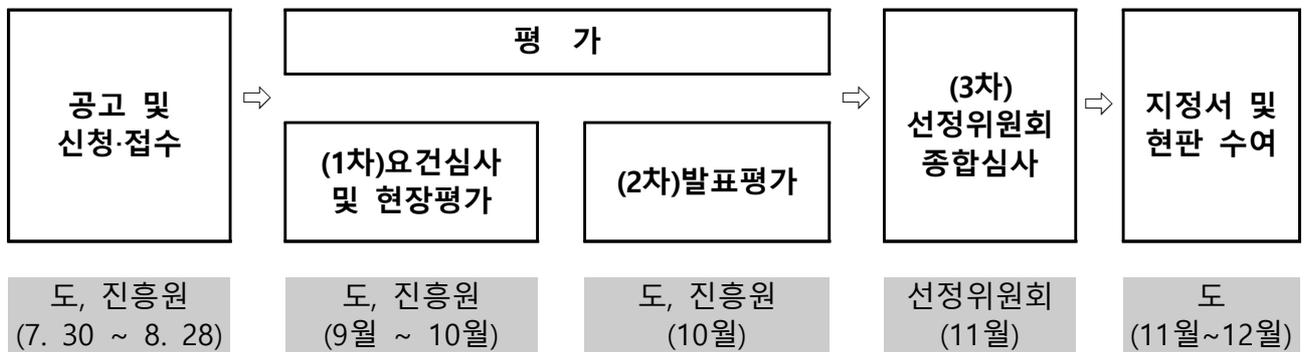
## 3

### 평가·선정절차

□ **선정규모** : 6개사 정도

\*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절차**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1차) 요건심사 및 현장평가** : '20. 9월 ~ 10월중

- 요건심사 : 경북PRIDE기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 현장평가 : 4인 내외로 실사단을 구성, 신청서상의 기술내용 일치여부 확인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생산시설, 공정관리, 운영상태 등 확인

< 현장평가 기준 : 100점 >

재무건전성(20), 기술력(26), 글로벌화(24), 일자리(15), 지역기여도(15)

○ **(2차)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평가 기준 : 100점 >

기업역량(30), 지속성장전략(40), 미래대응전략(20), CEO리더십(10)

○ **(3차)종합심사** : 현장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적합여부 심사

□ **결과 발표** : '20. 11월 중

- 경상북도홈페이지(<http://www.gb.go.kr>, 도정소식 / 경북소개 / 고시공고)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 게재

□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개최** : '20. 11 ~ 12월 중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과 함께 이메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정발표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및 거짓인 경우
  -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간접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ㄱ)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ㄷ)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 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경북PRIDE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연차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지원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거나 상세한 내용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 육성팀(054-470-85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7. 29(수)】</b>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성자	과장	정희석			
			사무관	백승모	주무관	이수현	
		연락처	054-880-3320				

## 최상의 여름휴가, 경북 농촌에서 가족들과 함께해요!

-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비대면 농촌관광으로 치유 -
- 경북도 의료진·전국민 농촌관광시설 숙박·체험 할인지원 인기 -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해외여행 대신 국내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여유롭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로 경북 농촌체험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경북은 산과 강, 바다, 그리고 시원한 계곡을 두루 갖고 있고,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와 향토 음식체험 등 그동안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희소성 있는 여행지로서 매력이 넘쳐난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가족 중심의 개별여행지로서 무엇보다 안전에 최적화 되어있으며, 그중에서도 올 여름 자연을 만끽하면서 자유롭게 힐링하고 싶은 여행지라면 단연 경북 농촌관광시설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이 제철인 자두, 복숭아, 옥수수 등 영농체험과 여름철 필수코스 물놀이, 자연을 벗 삼아 커피한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드립커피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인기를 끌고 있다.

김천 옛날소씨마을에 방문한 포항의료원 소속 간호사 안지현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바쁜 일정으로 가족들과 같이 보낼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 며, “가족들과 함께한 두부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만족

스러웠으며, 무엇보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가족들과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고 말했다.

또한, 경산 치유농장 트랙에 방문한 김정원씨는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무농약 야채로 버거와 카나페 만들기 및 건강주스 시식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치료를 위해 현장에서 고생한 의료진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시설의 체험·숙박비를 무료 또는 할인 지원하고 있다.

\* 농촌관광시설(농촌체험휴양마을 128개소, 치유농장 7개소)

대구·경북 의료진들에게는 6.15~9.15 3개월간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7.1~11.30 5개월간 5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촌관광시설을 방문한 후 ‘경북농촌체험 SNS인증 이벤트’에 참여해 후기를 남기면 경북 농특산품 쇼핑몰 ‘사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또는 3만원권 쿠폰이 발급되어 일석이조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본격적인 휴가철 혼잡한 여행지와 시간대를 피해 맞춤형 비대면 여행지로 제격인 경북 농촌에서 가족들과 함께 힐링 하시기를 바라며, 더 나은 농촌여행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사진별첨>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7. 29(수)】</b>	담당부서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정책과				
		작성자	과장	이원철			
			사무관	이상열	주무관	홍성진	
		연락처	054-880-7613				

## 동해안권 발전계획 수립 위해 경북·울산·강원이 뭉쳤다

- 7.29일,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차 변경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
- ‘연대와 협력의 환동해권 형성’ 과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 구현’ 목표 -

경상북도는 2016년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1차 변경계획’ 이후 해안 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정책 환경 및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2차 변경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29일 경북도청 화랑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 전우현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이병훈 기획관 등 중앙부처 관계관과 경상북도·울산광역시·강원도 3개 시도 관계관 및 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울산·강원·경북의 해안선에 연접한 15개 시군구 대상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계획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해안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경북도는 관련기관 협의체 대표기관으로서 올해 2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울산광역시·강원도와 상호 종합계약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2차 종합계획 변경(안) 내용은 ‘지속가능한 환동해 상생지대’를 비전으로 하고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 구현’ 과 ‘연대와 협력의 환동해권 형성’을 목표로 △에너지·해양자원의 성장 동력화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지역산업고도화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수소에너지 견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관광융합벨트 조성, 해산들 National Trail, 전기차 튜닝 산업기반 구축 등 시·도에서 제안한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비 및 사업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올해 10월 동해안 3개 시·도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하고, 중앙 관련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해안권 연계교통망 구축(남북 6축 철도 건설, 울릉 일주도로 건설), 국제해상교역거점 조성(영일만항 적기 완공, 울산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속초 크루즈항 조기 완성) 등 동해안 지역의 열악한 SOC망을 개선하고 원자력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동해안권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2030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국토의 지정학적 강점을 살려 동해안권을 대외 지향형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축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 참고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 「해안내륙발전법」 유효기간 연장('30.12.31)에 따른 정책환경 및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동해안발전종합계획('21~'30년) 수립
- 타당성이 없는 사업 및 다른 개발계획과의 중복사업 제외
- 신규(핵심)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지속 추진

## 보고회개요

- 일 시 : 2020. 7. 29(수) 14:00~15:30
- 장 소 : 경북도청 화랑실(2층-254호)
- 참 석 : 20명 정도
  - 국토교통부 : 4명(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관외 3)
  - 시·도 과장 및 담당자 : 8명(울산광역시 2, 강원도 2, 경상북도 4)
  - 연구원 : 8명(대구경북연구원 4, 울산발전연구원 2, 강원발전연구원 2)
- 주요내용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 중간보고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개회 및 내빈소개
14:05 ~ 14:10	5	○ 인사말씀 경제부지사님 국토부 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관님
14:10 ~ 14:30	20	○ 용역 중간보고 설홍수 책임연구원
14:30 ~ 15:00	30	○ 토론 및 의견수렴, 폐회

## 협조사항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 변경 연구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간 적극 협조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7. 29(수)】</b>	담당부서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				
		작성자	과장	유정근			
			팀장	이동진	주무관	권기복	
		연락처	054-880-4483				

## 경북도, 지방소멸위기 극복위해 전남도와 공동전선 구축

- 7.29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  
 - 지방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지역발전 정책의 제도적 틀 마련 필요 -

경상북도는 29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인구정책이 소멸위기지역의 최대의 현안사항이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남도와 경북도의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양 지자체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틀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이하 특별법)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주요 정책사례 및 특별법 마련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 되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소멸위기지역 지원대책의 목표를 지방소멸위지지역의 활력촉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으로 △인구활력 증진, △경제회복 촉진, △공간혁신 창출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자연적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양육지원정책으로 사회적 인구감소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돌봄, 정주환경, 일자리가 결합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토론에서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지역인구의 사회유출을 제로섬게임으로 인식,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에 충분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음에 공감했다.

이는 지방 인구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라는 공간에 주거, 일자리, 보육, 의료·복지환경을 갖출 수 있는 국가적 지원책이 마련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안 취지에 공감해 자리를 함께한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과거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은 더 이상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으며, 지방의 활력과 다양성을 새로운 국가성장의 엔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며,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을 강조했다.

이원경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며, “지역주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지자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8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진 행사후 송부>

## 참고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경북·전남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 정부의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
-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지역발전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

## 개요

- 일 시 : 2020. 7. 29.(수), 14:00 ~ 16:00
- 장 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 14층 세미나실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지방재정회관)
- 참 석 : 50명 정도(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 주최/주관 : 경상북도·전라남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요내용 : 지방소멸대응 주요 정책사례 및 특별법 마련 방안 논의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15	15' ▶ 개회, 국민의례 ▶ 인사말씀 - (미래통합당) 김형동 국회의원 - (전남)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 - (경북)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	사회 :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권한대행)
14:15 ~ 14:55	40' ▶ 주제발표 -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대책과 특별법 마련	박진경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4:55 ~ 15:10	15' ▶ Coffee Break	
15:10 ~ 16:00	50' ▶ 종합토론 - 이도선 동양대학교 명예교수 - 조정찬 송실대학교 교수 -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전희진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16:00	▶ 폐회	

 경상북도	<b>보도자료</b> 【20. 7. 29(수)】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작성자	과장	김수연		
			팀장	고대환	주무관	-
연락처	053-320-0282					

## 복숭아명품화단지 조성으로 경북 복숭아 인기 쑥쑥

- 경북농업기술원, ‘청도 복숭아 명품화단지 조성’ 지역특화사업 추진 -
- 신제품 보급, 공동선별시스템 운영 등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42% 증대 성과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청도 복숭아명품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자체 육성한 복숭아 신제품 보급이 확대되었으며, 브랜드화 비율도 크게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청도군에서 생산된 복숭아는 품질은 우수하지만 개인이나 작목반 단위로 판매되어 브랜드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유통 관계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청도 복숭아 명품화사업’을 추진해 청도 주요작목반별 공동선별 출하시스템 6개소를 설치하고 시장별 맞춤형 판매전략을 운영해 이전 보다 소득이 42%증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육종한 수황, 금황, 홍백 등 신제품을 조기 보급해 농가별 출하시기에 맞는 다품종재배로 출하시기를 분산했으며, 기존 배상형 수형을 팔매트 수형 등으로 수고를 낮춰 재배하는 등 품종 갱신과 새로운 수형보급도 병행 진행되었다.

사업 추진결과, 재배면적은 25%증대되었고 생산량은 43%, 브랜드화 비율도 30%에서 85%로 큰폭으로 증대 되었으며, 특히 공동선별시스템 운영을 위해 연중 28명의 고용인력을 신규 창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사업에 참여한 무티골작목반 조재원 대표는 “사업 전에는 개인이나

작목반 단위에서 공판장 판매가 주출하처 였으나, 사업을 통해 ‘초록 마을’ 로 브랜드화해 시장별 맞춤형 판매로 가격상승이 이루어져 소득이 많이 증대되었다” 고 말했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상북도가 전국 제일의 복숭아 주산지의 명성에 걸맞게 자체 개발한 복숭아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작목단위별 체계적인 농가교육과 공동선별 및 판매시스템을 구축해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사진별첨>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20. 7. 29(수)】</b>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				
		작성자	과장	김기섭			
			담당	임병선	주무관	문성인	
		연락처	054-880-4047				

## 8월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간편하게 이전등기 하세요

- 2020.8.5.~2022.8.4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경상북도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내달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적용지역은 도내 시·군의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의 동지역은 시행 제외

등기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후, 시·군의 현장 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관련 제한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 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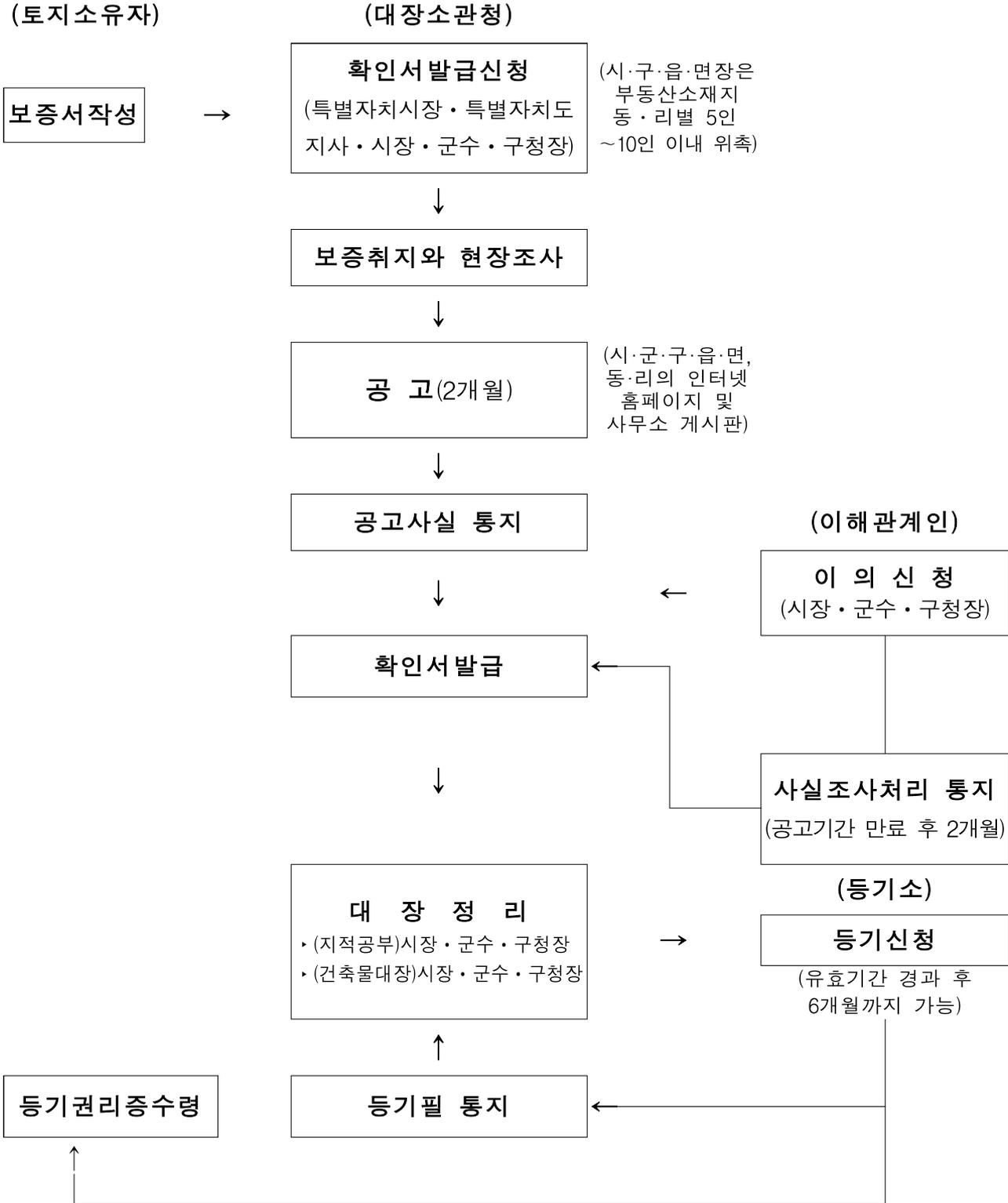
또한,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지난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전문자격 보증인의 보증수수료 등 종전과 달라진 사항과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없음>

# 참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흐름도



## 대구경북의 미래인 통합신공항 함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지금,

저희 두 사람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수십년간의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의 경제를 단번에 일으켜 세워줄  
대구경북의 역사적인 큰 희망입니다.

510만 시도민께서 간절히 소망하는 통합신공항의 운명은  
이제 며칠 뒤면 결정됩니다.

지난 7월 3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합의 마감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위군민 여러분!

통합신공항은 군위군수님과 군민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으로  
품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군위와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군수님과 군민들께서  
꿈꾸고, 열망하던 도약의 기회를 놓쳐선 안됩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의 치열한 경쟁과 상처,  
그 속에서 흘린 군민들의 땀과 눈물이 아무런 과실 없이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대구시의회의장, 경북도의회의장, 시도 국회의원은

국민들께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군위군의 용기 있는 선택과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위군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대승적 결단만이 대구경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군수님과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공동후보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군위와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과 세계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위군수님과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과 선택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여정을 함께 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 7. 29.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 공 동 합 의 문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시·도 국회의원은 대구경북의 미래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관련 법적절차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공항 IC 등 포함), 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
2.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는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군위군에 330만m<sup>2</sup>, 의성군에 330만m<sup>2</sup>를 각각 조성한다.
3.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을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군위군에 건립한다.
4. 군위군 관통도로(동군위 IC ~ 공항, 25km)를 공항이전사업 종료시까지 건설한다.
5. 지방자치법(제4조)과 관련 절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한다.

202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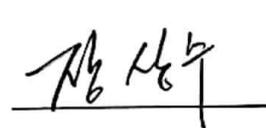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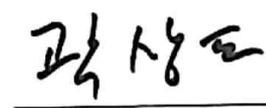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



대구시 국회의원  
곽상도



경북도 국회의원  
이만희

